민주, 광주 동구청장 4인·남구청장 3인 경선 확정

광주시당 경선 일정 돌입
북구청장 후보 문인 청장 확정
시의원 선거, 청년경쟁선거구
서구3·광산4 시민공천배심원제
14~19일 비례대표 후보 공모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지역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자를 확정하는 등 6·1 지방선거 경선전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14일 상무위원회를 열고 광주 동구청장·남구청장 선거의 경선 후보자를 확정하고 경선 일정에 돌입하기로 했다.

북구청장 후보로는 문인 현 청장만 신청함에 따라 사실상 공천이 확정됐다.

동구청장 경선 후보로는 임택 현 청장과 김성환 전 동구청장, 강신기 전 광주시 기획조정실장, 진선기 전 광주시의회 부의장 등 4명이다. 남구청장 경선 후보는 김병내 현 청장과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 박기수 전 TBN광주교통방송 사장이 확정됐다.

동구와 남구청장 경선은 '컷오프' 없이 후보 신청자들 모두가 경선을 진행하는 셈이다. 사실상 공천이 확정된 문인 북구청장은 향후 상무위원회와 중앙당 비대위의 인준을 받게된다.

이에 따라 시당 선관위는 이날 1차 회의를 열고 광주 기초단체장 경선 일정을 의결하는 등 본격적인 경선 관리에 들어갔다.

이날 경선이 확정된 동구와 북구청장 경선 후보자들은 15일과 16일 이틀 간 경선 후보자 등록을 마친 뒤, 18일 남구를 시작으로 19일(동구) 순으로 경선 TV토론이 열린다.

동구와 남구 경선은 TV토론과 선거운동기간을 거쳐 오는 21일과 22일 실시된다. 경선 방식은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안심번호를 대상으로 표본수를 추출해 무작위 ARS투표를 통한 국민참여경선(권리당원 50%·일반 시민 50%)으로 진행된다.

서구와 광산구청장 경선은 음주운전 등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서대석 서구청장과 박시종 광산구청장 예비후보가 재심을 신청함에 따라 결과가 나오는 대로 후보자 면접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 광주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는 이날 광주시의원 선거에서 청년 경쟁 선거구로 지정한 서구 3선거구와 광산 4선거구를 '시민공천배심원제'경선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시민공천배심원제의 경우 신뢰도가 높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300명 가량의 배심원단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후보자들에 대한 집단 면접 등을 온라인 플랫폼으로 제작해 배심원단이 이를 보고 모바일로 투표하게 된다.

이를 위해 공관위는 15~16일에 광역의회 공천 신청자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고, 기초의원 후보자들 면접도 다음 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광주시당은 또 이날부터 19일까지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신청을 받기로 했다. 비례대표 공관위는 모집분야로 광역의회 1번은 여성청년(만 45세 이하 여성), 2번은 중증장애인, 3번은 교육전문가(여성)를 공천하기로 의결했다.

기초의원 비례대표 1번은 여성, 2번은 제한을 없앴다. 기초의회 비례대표 추천은 해당 지역상무위원회에서 순위투표를 통해 선출하기로 했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광역의원 비례 대표 선출도 시민공천배심원제를 통해 공천할 예정이며, 시당 상무위원회가 갖고 있는 순위투표 권한도 과감하게 배심원단에게 이양했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1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송갑석 위원장이 당사에서 항의 시위 중인 박시종 예비후보 지지자들을 찾아 설명하고 있다. 송 위원장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서구와 광산구의 공천심사를 "중앙당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잠정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민주 광주시장 경선 이용섭·강기정 리턴매치

정준호·김해경 탈락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은 '양강'으로 꼽혔던 이용섭·강기정 예비후보의 '양자 대결'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14일 광주시장 경선 후보로 이용섭 광주시장과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확정했다.

공관위는 지난 12일 후보자 면접과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등을 바탕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과거 탈당 전력 등이 있었던 이 예비후보는 이번 공관위에서 페널티(감점)가 없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4년 만에 광주시장 자리를 놓고 강 예비후보와 리턴매치를 벌이게 됐다.

광주시장 경선 후보로 나섰던 정준호 변호사와 김해경 남부대 초빙교수는 '컷오프' 됐다. 정 변호사와 김 교수는 약체로 분류됐지만, 청년과 여성이라는 점에서 경선 참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지만, 결국 후보 적합도 등의 벽을 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공관위의 결정은 15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경선후보가 최종 결정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선 일정을 잡게 되며, 경선은 여론조사 50%와 권리당원 투표 50%로 치러진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민주 장흥군수 후보 경선 파행…후보 4명 경선 보이콧

권리당원·군민 100% 여론조사
전남도당 경선 방식 변경
탈당 경력 감점 적용 제외 반발

민주당이 장흥군수 경선을 여론조사(권리당원 50%, 일반군민 50%)만으로 진행키로 확정했다. 하지만 7명의 민주당 장흥군수 후보자들 중 4명의 후보가 바뀐 경선 방식에 반발, 여론조사 경선에 응하지 않으면서 경선 초반부터 파행으로 얼룩지고 있다.

특히 여론조사 경선을 치르기로 한 곽태수·김성·조재환 등 3명의 후보들은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또는 다른 당 후보로 선거에 출마한 전력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이 내세웠던 '무소속 출마를 막기 위한 여론조사 경선'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다. 여기에 기득권 정치 후보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반론에도 불구, 도덕성·정체성·당 기여도 등에 대한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반영 없이 여론조사로만 공천 후보자를 결정키로 강행하면서 '전남도당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가 유권자를 무시하고 각자 이해관계나 당선에 연연하고 있다'는 비판이 시민단체 등 정치권 안팎에서 거세다.

14일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전남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김승남 전남도당 위원장(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위원장)의 지역구인 장흥군수 경선을 공관위 심사 없이 권리당원(50%)과 일반 시민(50%)이 참여하는 두 차례의 여론조사를 진행해 후보를 결정키로 확정·발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57조 2) 등을 감안해 후보들이 경선 전 '컷오프' 심사 결과에 불복,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민주당 측은 모든 장흥군수 후보자들의 동의를 받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예비경선을 앞둔 상황에서 탈당·무소속 출마 경력 등으로 감점 대상에 포함됐던 일부 후보들의 감점 적용이 제외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나머지 후보들이 반발했고 예비경선 보이콧으로 이어졌다.

이들 후보들은 "합의서 작성 뒤 이렇게 감점 적용 기준을 바꾸면 어떻게 하느냐, 당에 남아 헌신적으로 활동했던 사람들과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자들을 같은 기준으로 놓고 경선을 치르는 게 말이 되느냐"고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측은 합의서 작성 이후에 조건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가감산 적용은 당헌·당규와 공관위 결정에 따른다'는 합의서 조항을 인용, 3명만으로 예비경선을 치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예비경선에 나선 3명 모두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을 탈당해 출마한 경력이 있는 후보자들이라는 점에서 여론조사 경선 취지도 모양새가 빠지게 됐다.

장흥지역의 경우 7차례의 지방선거 중 4차례가 무소속 후보 당선으로 이어진 전례가 있고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흥군수 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김성 후보의 경우 민주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당선됐었다.

다만, 강진군수 후보 경선은 일부 후보가 끝까지 동의하지 않으면서 기존대로 정성평가와 적합도 여론조사를 거쳐 경선 후보를 정하고 이후 권리당원(50%)과 일반 시민(50%)이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으로 최종 후보자를 결정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